

# 롯데 최동원↔삼성 김시진...1988년 별들의 '쇼킹 트레이드'

롯데-삼성, 거물급 포함 4대3 트레이드 한달 뒤 롯데 김용철-삼성 장효조도 바뀌 2015년 롯데-kt 9명 거래 '최다 맞교환'을 트레이드 열풍, 프로야구 활성화 기대



KBO 36년 역사상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1호는 1988년 롯데와 삼성이 두 차례 단행한 4대3 그리고 2대2 트레이드였다. 당시 유니폼을 바꿔입은 선수들의 면면은 지금 다시 봐도 화려하다. 최동원과 김시진, 장효조, 김용철(왼쪽부터) 등 초창기 프로야구 대스타들이 트레이드의 중심에 있었다. 스포츠동아DB

정치권이 때 아닌 '잠미 대선'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시점에, KBO리그는 때 아닌 '뿔뿔 트레이드' 열풍으로 그라운드 안팎이 뜨거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전력 세팅하고, 4월이면 '탐색전'을 펼치던 시기. 우리 편에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고, 상대 편에 조금 허술한 면이 느껴져도 4월에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했다.

그런데 올해는 시즌 개막 첫 달인 4월에만 벌써 3건의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4일 SK와 KIA가 단행한 4대4 트레이드가 뇌관으로 작용했다. SK가 이명기(외야수) 김민식(포수) 최정민 노관현(이상 내야수)을 보내고, KIA가 노수광 윤정우(이상 외야수), 이흥구 이상우(이상 포수)를 건네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1건의 거래에 8명이 오간 것은 1982년 KBO리그 출범 후 4월에 이뤄진 역대 트레이드 중 최대 규모였다.

양 팀이 이 트레이드를 기점으로 놀라운 상승세를 타면서 '윈-윈 트레이드'의 좋은 예를 제시하자 다른 팀들도 뒤뚱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매물을 들고 장터로 나서고 있다. 17일 두산과 한화가 포수 최재훈과 내야수 신성현을 주고받는 거래를 성사시켰고, 하루 뒤인 18일 경기 직후엔 kt가 장시환과 김건국(투수), 롯데 오승택(내야수)과 배제성(투수)을 내놓는 2대2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범경기 기간인 3월 17일 NC가 강윤구(투수)를 얻고, 넥센이 김한별(투수)을 받는 1대1 트레이드까지 합치면 벌써 4건에 8개 구단이 관여돼 16명이 유니폼을 바꿔 입었다.

### ●역대 트레이드 총 299건, 641명이 오갔다 "어, 서 선수!"

삼성 유격수 서정환(전 KIA 감독)은 1982년 12월 어느 날 밤,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시즌이 끝나고 서울집에 올라가 있던 그는 어스름한 밤에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를 자세히 살피었다. 해태 이상구 홍보과장(전 KBO 사무총장)이었다. 당시 국가대표 출신 서정환은 원년 삼성 멤버로 합류했지만, 주전에서 밀린 상태였다. 오대석이 6월 12일 구덕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사이클링히트를 치는 등 기세를 올리면서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기 때문이었다.

"사실 삼성 서영무 감독님(작고)한테 틀어 날 때마다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조르고 졸랐다. 결국 허락을 얻어냈고, 선수층이 얇은 삼미로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당시에 구단이 트레이드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선수가 알아서 찾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해태 쪽에서 그날 서울집까지 찾아오면서 방향이 바뀌게 됐다."

서 전 감독의 회상이다. 경인선 대신 호남선을 탄 서정환은 해태 유니폼을 입게 됐다. 현금 1500만원 트레이드. 12월 7일이었다. KBO리그 최초의 트레이드. 서정환을 영입한 해태는 이듬해인 1983년부터 우승 신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창기엔 트레이드가 드물었지만, 그래도 최초의 이 트레이드가 성공작으로 판명되면서 구단과 선수 사이에 트레이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1호 트레이드 서정환부터 최근 롯데와 kt의 2대2 트레이드까지 KBO리그에서는 총 299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그 사이 무려 641명이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다.

### ●우리를 놀라게 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299건의 트레이드 중 KBO리그 역사를 뒤엎는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도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트레이드는 1988년 말 나온 롯데와 삼성의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다. 그해 11월 22일 롯데와 삼성은 4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원래한 선수의 이름부터 모두를 짝짝 놀라게 한 거물들이었다. 바로 롯데 최동원과 삼성 김시진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롯데가 투수 최동원, 오명복, 포수 김성현을 주고, 삼성이 투수 김시진, 전용권, 내야수 오대석, 외야수 허규욱을 교환카드로 내놓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불과 한 달 뒤인 12월 20일에 양 구단은 2대2 트레이드를 또 단행했다. 이번엔 삼성 장효조와 롯데 김용철이라는 간판타자가 포함됐다. 롯데는 내야수 김용철 투수 이문환을 보냈고, 삼성은 외야수 장효조와 투수 장태수를 건넸다. 사실상 한 달 사이에 양 팀에서 6대5 트레이드를 단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선수노조 설립 문제와 연봉협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양 구단이 간판스타들을 맞추는 트레이드를 하자 야구계는 물론 팬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KBO리그 트레이드 역사에서 한꺼번에 5명 이상을 주고받은 대규모 트레이드는 최근 SK와 KIA가 합의한 4대4 트레이드까지 총 16건이 나왔다. 1983년 11월 17일 롯데가 임호균을 얻기 위해 삼미에 4명(박정호 권두조 김정수 우경하)을 주는 4대1 트레이드가 이뤄진 것이 시초다. 이어 1986년 10월 13일, 롯데가 다시 임호균을

포함해 배정환 양상문 이진우 김진근 등 무려 5명을 주고, 청보가 정성만 정구선 우경하 등 3명을 보내는 5대3 트레이드를 단행하기도 했다. 8명이 오간 트레이드는 이후 한 차례 더 있었다. 2002년 SK와 삼성의 6대2 트레이드. 삼성에서 김기태 김동수 김상진 김태환 이용훈 정경배를 내놓고, SK에서 브리토와 오상민을 건넸다.

역대 단일 트레이드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오간 건 2015년 롯데와 kt의 5대4 트레이드로, 총 9명이 엮인 거래였다. 당시 롯데는 장성우 최대성 윤여은 이창진 하준호를 주고, kt는 박세웅 이성민 안준열 조현우를 보냈다. 롯데는 KBO리그 역사에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의 중심 구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자고 나면 트레이드, 다음은?

올 시즌 트레이드가 시즌 초반부터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발해지면서 각 구단 관계자와 감독, 선수들도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팬들도 자고 일어나면(혹은 자기 전에) 짝짝 놀랄 만한 트레이드가 터지기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 전력도 전력이지만,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야구계는 최근의 트레이드 열풍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지 않는다. A구단 단장은 "최근 여기저기서 트레이드가 터지면서 야구판이 재미있어지고 있다"면서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고,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장들이 많아지면서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구단 단장은 "과거엔 팬이 트레이드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구단이 많았지만, 최근 갑자기 각 구단마다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하자 이제는 트레이드를 안 하면 괜히 무능하고 일 안하는 구단처럼 비쳐질 것 같다. 앞으로 팀에 필요한 선수 1~2명을 바꾸는 트레이드는 물론 시즌 중에 짝짝 놀랄 만한 대규모 트레이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솔직히 예년보다 트레이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레이드는 박병호처럼 KBO리그 초반 레이스의 최대이슈는 단연 트레이드다. 벌써 4차례에 이르는 맞교환이 성사될 만큼 각 구단들이 장벽을 낮추고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다. 이들이 바라는 소망은 역시 하나. 영입한 선수가 세 팀에서 발돋움해 전력 보강을 완성하는 일이다. LG 시절 만년 유망주로 꼽혔지만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으로 옮긴 뒤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한 박병호. 스포츠동아DB

## 갖고싶은 선수 슬쩍 흘리고, 받아치고... '트레이드 퍼즐' 핑퐁게임하듯 맞추죠

### 조범현의 야구학

'조범현의 야구학' 두 번째 주제는 왜 들어 유독 활발해진 트레이드 시장이다. 4월에만 벌써 10명 넘는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을 만큼 어느 때보다 트레이드를 둘러싼 움직임이 뜨겁다. 최근 트레이드의 배경과 경향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야구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범현 전 kt 감독이 답했다.

2017시즌 KBO리그 트레이드 현황	
일시	이적 선수 및 구단
3월 17일	강윤구(넥센→NC)김한별
4월 7일	노수광·이흥구·이상우·윤정우 (KIA→SK)
	이명기·김민식·최정민·노관현
4월 17일	최재훈(두산→한화)신성현
4월 18일	오대권·배제성(롯데→kt)장시환·김건국

보안 생명...물밀침상 고도의 기술 필요 팀과 선수들 미래 위해선 트레이드 필수

Q : 최근 KBO리그에 트레이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규모도 다양합니다. 그 배경과 경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A : 우선 그동안 KBO리그에선 왜 트레이드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첫째 이유는 선수층이 얇았다는 점입니다. 8개 구단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트레이드로 내출만한 선수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 그러나 팀들 대부분이 트레이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가뜰이나 유망주가 아까운 상황에서 트레이드로 내준 선수가 이적 후 우리 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염려가 컸습니. 그런데 이러한 기류가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10개 구단 체제가 안착되면서 풀(pool)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내줄 수 있는 선수도 생겼고, 데려오고 싶은 선수도 늘어난 셈이죠. 여기에 선수출신 단장들이 득세하면서 구단 간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습니.

Q : 선수출신 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단장야구'가 트레이드에 미치는 영향

공급해 합니다. 트레이드는 어떻게 성사되고, 현장과 프런트는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죠.

A :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레이드는 현장에 있는 감독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독은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하면서 취약 포지션을 파악한 뒤 다른 팀에서 데려올 만한 선수를 염두에 두지요. 여기서 감독들끼리 1차 대화가 오갑니다. 이후 시범경기를 치르면서 한 층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시즌을 앞두고 시급히 보강해야할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음 시즌은 시즌 초반입니다. 부상선수가 생기거나 이탈전력이 나오면 트레이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 그런데 최근엔 감독보다 단장, 즉 프런트가 주도하는 트레이드가 많아졌습니. 특히 서로 친분이 있는 선수출신 단장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현장과 프런트의 갈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 현장은 즉각적인 보강을 원하는 반면, 프런트는 팀의 장기적 안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죠. 구단별로 양측의 영향력에 따라 트레이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

Q : 트레이드는 물밀 현상이 오간 뒤 짝짝 발표

로 세상 밖을 나옵니다. 그만큼 보안은 물론 협상의 기술도 중요해 보인단.

A : 트레이드는 역시 보안이 생명입니다. 보통 트레이드는 단장과 감독, 운영팀장, 스카우트팀장 정도만 정보를 공유하죠. 여기서 스카우트팀장이 포함된 이유는 상대선수의 정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팀장의 경우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 대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베테랑들입니다. 선수의 기본정보는 물론 이력, 성향, 부상경력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죠. 이 때문에 스카우트팀으로부터 중요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상의 기술도 빼놓을 수 없죠.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갖고 싶은 선수를 슬쩍 언급하면 상대에서도 우리팀에서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타구처럼 공수를 주고받으며 카드를 맞춰나가죠. 고도의 협상기술이 여기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맞어나가면 1대1 교환이 4대4로 확대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Q : 트레이드가 지닌 최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 구단이 전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거액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긴 시간을 들여 팀을 바꿔나

가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프리에이전트(FA) 혹은 대형 외국인선수 영입, 후자는 신인 육성이 대표적인 사례겠지요. 그러나 트레이드는 돈과 시간을 절약한 채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팀은 물론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최근엔 이러한 장점들이 드러나면서 트레이드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Q : 한동안은 트레이드 열풍이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트레이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할까요.

A : 무엇보다 구단들이 트레이드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선수를 아끼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팀과 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하나 더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적 활성화가 트레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국형 이적제도를 도입해 구단과 선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 최근 트레이드 열풍이 이를 위한 기폭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